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2. 9. 29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2. 9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09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14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1 여수·광양항, '22년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 1위 기록
- 2 평택시,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
- 3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심각

국외 항만 주요 동향

- 1 상하이항, 동북아 공컨테이너 운송 센터 개장
- 2 미국 화물철도 노사협상 극적 타결
- 3 수에즈운하, '23년 1월부터 두 자릿수 통행료 인상 예정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1 레미콘업계, 시멘트 가격인상 철회를 위한 무기한 파업 예고
- 2 철광석 가격, 중국 철강 수요 위축 전망으로 하락
- 3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배관의 단계적 수소배관 전용화 추진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① 부산항만공사(BPA), 로테르담 물류센터 친환경 보조금 수령¹⁾

- » BPA에서 운영중인 로테르담 물류센터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친환경 건물로 지정되어 보조금을 수령함
-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유럽에 진출한 국내 중소기업들에 안정적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해 BPA가 올해 1월부터 운영 중
- » 로테르담 물류센터가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EIA(Energy Investments Tax Advantage)와 SDE++(Sustainable Energy Grant Scheme)임
- EIA는 건물의 단열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설에 조세 혜택을 주는 보조금으로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2천만 원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음
- SDE++는 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한 건축물에 부여하는 보조금으로 로테르담 물류센터는 태양광 패널 설치 등으로 15년에 걸쳐 약 4억 원의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됨

② '23년 상반기 부산항 입국장에 인도장 시범 운영 실시²⁾

- » 지난 9월 14일, 관세청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상반기에 부산항 입국장에 인도장 시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힘
- 관세청은 코로나19로 실적 악화에 직면한 면세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해당 대책을 마련함
- » 해당 시범 서비스가 실시되면 부산항으로 입국 시 국내 시내 면세점과 출국장 면세점에서 구매한 모든 면세품의 수령이 가능함
- 부산항 입국장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등 주요 공항으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예정임
- » 또한 부산항은 면세점 온라인 판매 채널 및 구입 가능 물품 확대 등을 통해서 면세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임
- 기존에는 시내 면세점에서 운영하는 단독 온라인 사이트에서만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였으나 이를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구매가 불가했던 주류 상품 등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임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9.06.),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28087>(2022.09.19 검색)

2) 국제신문(2022.09.14.),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0914.99099003789> (2022.09.19 검색)

2) 인천항

① 인천항만공사(IPA), 비정형·벌크화물 취급하는 항만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³⁾

- » IPA는 하역사 등에 소속되지 않아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항만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시행함
- 벌크화물 취급 근로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5일간 시행된 안전교육은 최근 발생한 항만재해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작업지침을 집중적으로 교육함
- 특히 안전사고 처리방법, 근로자 대응방안 등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이 교육에 포함됨
- IPA는 '22년 6월부터 하역현장 사고 예방과 근로자 보호를 위해 '2022년 인천항 안전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안전설비 부문에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② 백령항로 신조 여객선 투입⁴⁾

- »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인천항과 백령도, 소청도, 대청도를 잇는 백령항로에 1,600톤급 신조 여객선이 9월 7일부터 투입된다고 밝힘
- 기존 여객선(534톤)을 대체하는 신조 여객선은 선박의 규모와 속도가 제고되어 운항시간을 30% 단축시킬 수 있음
- 신규 투입되는 여객선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사업'을 통해 건조되었으며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된 최초의 쾌속선임
- 그간 규모가 작은 선박운항으로 초래된 잦은 결항과 항해속력 저하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섬주민들의 이동권과 정주여건의 향상이 기대됨

3) 인천항만공사 홍보자료(2022.09.2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2859&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 (2022.09.22 검색)

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
 (2022.09.06.), <https://incheon.mof.go.kr/ko/board.do?menuIdx=1691&bbsIdx=82530> (2022.09.19 검색)



3) 여수·광양항

① '22년도 상반기 수출입 물동량 1위 기록⁵⁾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22년도 상반기 여수·광양항 수출입 물동량이 1억 100만 톤을 기록해 국내 1위 수출입 항만을 차지했다고 밝힘

- 여수·광양항은 '22년 상반기 동안 석유화학 관련 제품 7,200만 톤, 제철 관련 제품 4,500만 톤, 컨테이너 100만 TEU 등, 총 1억 100만 톤의 물동량을 처리함
- 이는 전국 항만 수출입 물동량의 약 20.4% 수준이며, 울산항은 8,200만 톤(16.5%), 부산항 8,100만 톤(16.4%), 인천항 6,100만 톤(12.3%)을 기록함
- 이로써 여수·광양항은 여수석유화학단지의 석유화학제품, 광양제철소의 철강 화물을 기반으로 자동차, 컨테이너까지 대부분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산업항만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함
- 또한 YGPA는 항만배후단지 개발과 더불어 융복합 항만생태계 조성, 국내 최초 R&D 해양산업클러스터 개발 및 운영, 완전 자동화부두 개발, 국내외 우량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족적 화물창출형 항만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힘

»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선박량 감소, 인플레이션 및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글로벌 수요 감소, 주요 국가의 항만 적체 등 대내외 악재가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 수출입 물동량의 불확실성이 증가함

-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YGPA는 현 국내외 상황과 여수·광양항의 장점을 결합해 목표 화물 유치 전략을 유지하고자 함
- 실제 상반기에도 낮아진 선박의 정시성 등의 상황을 주목하여 부정기선·공컨테이너·환적 화물을 목표로 마케팅 화물을 전개해 컨테이너 화물을 유치한 결과, 109척의 부정기선(약 13만 TEU)을 유치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28척(약 4만 TEU) 대비 289.3% 증가한 수치임
- 또한 상반기에는 환적 화물 유치를 위해 국내 선사들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펼쳤으며, 하반기에는 국내외 얼라이언스들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임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8.22), [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255&category=\(2022.09.19. 검색\)](https://www.ygpa.or.kr/kr/ypg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7boardId=bbs_000000000000213&mode=view&cntId=1255&category=(2022.09.19. 검색))

4) 울산항

① 울산항만공사(UPA),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추진⁶⁾

» UPA는 10월 14일까지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굴·해소하고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2022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함

- 이번 진단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추진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이며, 울산항 일원의 항만시설물과 건설현장 등 45개소 대상으로 부두이용자, 분야별 전문가(정밀안전점검 용역사, 건설사업관리단, 부두별 시설안전보안관)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됨
- '국가안전대진단'은 세월호 참사 후 '1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이나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시설에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정해 범정부 차원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등이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함
- UPA는 안전대진단을 통해 발견된 안전위해요소를 긴급유지보수공사를 통해 해소한다는 방침임

6) 울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2.09.05), [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5751\(2022.09.19. 검색\)](https://www.upa.or.kr/bbs/view.do?bbsId=BBS_000000000000060&mid=001005002001000000&dataId=15751(2022.09.19. 검색))

② 울산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추진⁷⁾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가을철 기상악화 대비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9월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함

- 가을철(9월~11월)은 성여기로 조업활동 증가로 인한 어선-상선 간 충돌사고 우려가 높고, 태풍 내습과 기습폭우 등 기상변화도 심해서 계절적 위험요인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
- 울산항 가을철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봄철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 선종별로는 위험물운반선과 예인선, 유형별로는 해양오염, 기관손상, 충돌 순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울산청은 3개월간,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운반선 안전점검 강화」, 「3대 인명피해 사고(안전사고, 충돌·전복, 화재·폭발) 중점관리」, 「위험요인(가을태풍) 대비태세 확립 및 안전문화 확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시행함

7) 울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9.01),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82428\(2022.09.19, 검색\)](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82428(2022.09.19, 검색))

5) 평택·당진항

① 평택시, 국토교통부 ‘수소도시 조성사업’ 선정⁸⁾

» 평택시는 지난 9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 국비 내시 되었다고 밝힘

- 수소도시 조성사업이란 교통, 산업, 주거에 이르기까지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도시로서 건물에 수소연료전지가 설치되어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와 보일러, 에어컨을 친환경 에너지로 대체해 도시환경 및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 평택시는 이번 정부지원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그간 추진해온 수소특화단지, 수소항만 조성사업이 더욱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수소도시가 더해져 산업·항만·도시가 융합된 수소도시 모델을 완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 평택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를 대상으로 총 420억 원(국비 210억 원, 도비 63억 원, 시비 147억 원) 규모로 추진됨
- 사업대상 지역은 수소에너지 전환사업 외에 '수소도시 기술지원센터'를 구축해 연관 기업을 유치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해 수소도시와 연관된 산업을 육성하게 됨
- 이와 관련해서 평택시는 지난해 7월 정부, 경기도, 기업 등 22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최초로 수소특화단지, 수소항만, 수소도시가 융합된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을 선포한 바 있음
- 수소특화단지는 16개 기관 및 기업이 6,500억 원을 투자해 수소생산 및 액화, 탄소포집, 공기액화 분리, 연료전지발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중·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을 준공하여 안정적인 수소 공급기반을 마련함
- 또한 수소항만은 10개 기관 및 기업이 참여해 평택항 내 화물트럭, 하역장비 등의 연료를 수소 전환하여 그린수소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물트럭 등의 수소 충전을 위한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

8) 평택시청 보도자료(2022.09.05.), [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idx=277230&ptidx=90\(2022.09.21, 검색\)](https://www.pyeongtaek.go.kr/pyeongtaek/bbs/view.do?mid=0403060000&bidx=277230&ptidx=90(2022.09.21, 검색))

6) 포항항

① 포항 철강국가산업단지,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심각⁹⁾¹⁰⁾

- » 지난 6일 한반도를 통과한 태풍 ‘힌남노’로 인해 포항항 배후단지에 위치한 포항철강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침수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됨
-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위치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공장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여 조업 중단이 발생하였고, 조업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철강산업뿐 아니라 자동차, 조선, 기계 등 국내 주력 산업에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해당 지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포항시, 경상북도,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협회, 무역협회, 산업단지관리공단, 코트라, 주요 철강기업 등 민간군이 협력하고 있음
-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월 14일 ‘철강 수해복구 및 수급점검 TF’를 가동하여 생산시설의 조속한 복구 및 국내 수요산업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임
- 철강 생산차질이 자동차-조선 등 수요산업 제품 생산 및 수출입 차질로 파급되지 않도록, 철강기업 정상화 지원, 수요산업 철강재 수급 점검, 수출입 동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9) 철강금속신문(2022.09.16.),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484>(2022.09.21. 검색)

10)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2.09.1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535>(2022.09.21. 검색)

포스코 침수지역



자료 : 철강금속신문, 포스코 제공(2022.09.16.), <https://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484>(2022.09.21. 검색)

② 영일만항, 중고차 이집트 수출 시범운항 개시¹¹⁾

» 영일만항은 지난달부터 국내 중고차량 반입을 시작했으며, 이달 14일 이집트행 자동차운반선의 첫 시범운항을 진행함

- 포항영일만신항과 하역계약을 맺은 CIG해운은 이집트, 리비아, 요르단, 터키, 과테말라 등의 서비스항로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범운항 기간 자동차운반선을 투입하여 항차당 1,300~1,500대의 자동차를 수출할 예정임

11) 코리아워킹가제트(2022.09.16.),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5610(2022.09.21. 검색)

7) 동해·묵호항

① 동해항,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특화 개발 추진¹²⁾

» 동해시는 동해항 인근 118만 4,000㎡ 면적을 개발하기 위해 '38년까지 총사업비 6,834억 원(추정금액)이 투입되는 '스마트 복합물류 항만 기반 구축 사업'을 공약시책으로 공식 확정함

- 본 사업의 목적은 동해시를 환동해권 북방 물류를 주도하는 산업물류 도시로 만드는 것이며 국가 재정사업과 민간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단계별(3단계) 개발 계획을 수립함
- 본 사업의 주요 추진 분야는 스마트 복합물류 플랫폼 구축, 동해항 배후 복합물류단지 개발, 국제항로 활성화임
- 스마트 복합물류 플랫폼 구축 분야는 항만배후단지 지정 및 개발을 통해 배후단지 내에 제조·가공 기능을 갖춘 물류기업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유치하고 중소 수출입 물류기업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를 건립하는 것임
- 동해항 배후 복합물류단지 개발 분야는 동해항 배후단지에 철도 컨테이너 야적장, 철송장, 연계교통망,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물류창고 및 업무지원시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국제항로 활성화 분야는 한국-러시아-일본 카페리 국제항로 안정 및 활성화와 컨테이너선을 유치하는 것임

» 본 개발은 총 3단계로 구성되며, '23년까지 97억 원(1단계), '28년까지 1,667억 원(2단계), '38년까지 5,070억 원(3단계)이 투입될 계획임

- 1단계(단기계획)는 동해역 남서쪽 64만 ㎡ 부지에 동해항 배후 복합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국제 정기항로 개설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장려금 지원, 컨테이너 장치장 및 야드 확충, 항만기능 재배치 등의 사업이 추진됨
- 2단계(중기계획)는 동해항 배후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진행, 장려금 지원 확대 및 물동량에 따른 컨테이너 야드 확충이 계획됨
- 3단계(장기계획)는 화물 유치 장려금 지원, 항만구역 확장, 부두 개축, 고정식 크레인 설치 및 철도·항만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대규모 항만배후단지 조성이 계획됨

12) 강원도민일보 (2022.09.17.),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81919>(2022.09.17. 검색)

8) 목포항

①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 착공¹³⁾

» 목포해수청은 '목포신항 대체진입도로 건설공사'를 9월 23일 착공한다고 밝힘

- 기존 목포신항 진입도로는 주민 생활도로로써 신항 배후수송망 기능을 동시 수행하고 있어 그 동안 교통정체 등으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가중과 대형 트럭 이용에 따른 교통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전용도로 건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목포해수청은 물류비 절감과 안전운행을 위해 목포신항과 삼호읍 영암테크노폴리스(구 대불국가산단) 지역을 연결하는 길이 1.69km, 폭 25.5m, 왕복 4차선의 대체진입도로를 건설할 예정임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시점 및 종점 포함 4개소에 교차로를 만들어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총사업비 498억 원을 투입해 오는 '26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임
- 목포해수청은 이번 대체진입도로 확보를 통해 교통정체 해소와 이동거리 단축 등으로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를 볼러와 향후 30년간 약 65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이동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3)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2.09.19.),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82676\(2022.09.21. 검색\)](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82676(2022.09.21. 검색))

9) 대산항

① 서산시, 대산항 해운·항만 관계자 초청 활성화 간담회 개최¹⁴⁾¹⁵⁾

» 서산시는 8월 19일 대산항 이용기업 및 관계기관과 해운·항만 관계자 초청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함

- 인센티브 제도 개선 및 화물 유치 등 항만 활성화 방안을 토론허기 위해 개최했으며, 업체 및 관계기관 30여 명*이 참석함

* 컨테이너 선사(고려해운, SITC, 팬오션, 장금상선, 팬스타), 화주기업(한화토탈 에너지스, 엘지화학, 롯데케미칼, 한화임팩트), 국제물류주선업자(태웅로직스, 삼성SDS, 한익스프레스, 롯데글로벌로지스), 항만하역사(대산항만운영, 동방), 관계기관(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서산상공회의소) 등

- 한화토탈 에너지스는 대산항 컨테이너선 항차 축소로 대산항 수출화물 선적량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컨테이너 선복 공급 확대를 주문했으며, 동방은 하역능력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산항 부두 운영계획을 밝힘
-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대산항 이용자 편의를 위한 2항로 및 3항로 개선, 정박지 신규지정 등 수역 시설 개선방안 검토 내용을 공유했으며, 시는 신규항로 개설과 안정적인 선복 공급을 위한 대산항 인센티브 제도 개선계획을 밝힘

14) 서산시청 보도자료(2022.08.22.), [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282538&searchCtgr=y=&searchCnd=CN&searchKrdw=%EB%8C%80%EC%82%B0%ED%95%AD&pageIndex=1&integrDeptCode=\(2022.09.20. 검색\)](https://www.seosan.go.kr/www/selectBbsNttView.do?key=1260&bbsNo=101&nttNo=282538&searchCtgr=y=&searchCnd=CN&searchKrdw=%EB%8C%80%EC%82%B0%ED%95%AD&pageIndex=1&integrDeptCode=(2022.09.20. 검색))

15) 코리아워킹가제트(2022.08.23.), [https://www.ksq.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5352\(2022.09.20. 검색\)](https://www.ksq.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5352(2022.09.20. 검색))



» 서산시는 대산항 기항 컨테이너선사에 안정적 선박 공급을 주문함

- 대산항 물동량 감소는 컨테이너선의 입항 감소로 기업들이 다른 항만을 통해 화물을 수출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시는 대산공단 화주 기업 수출물량의 대산항 평균 이용률이 16.8%인 점을 참고해 대산항을 이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연간 추가 물류비용이 약 9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참석한 정기선사 관계자에게 대산항의 안정적인 선박 공급을 주문함
-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대산항 신규항로 개설 필요성과 하역 등 항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향후 운영 개선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임
- 시는 대산항의 자체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항만 하역능력과 컨테이너 정기항로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고 항만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대산항 인센티브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임

10) 군산항

①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¹⁶⁾

» 해수부는 군산항과 장항항의 항로준설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수용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지난 8월 24일 예비타당성을 통과했다고 밝힘

- 지금까지 준설로 인해 발생하는 토사는 군산항 내 금란도 투기장과 새만금 산업단지에서 수용해왔으나 금란도 투기장 이용시한이 '22년 말까지며 새만금 산업단지도 '25년까지만 이용 가능하여 신규 준설토 투기장 확보가 시급했음
- 이에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포함되었으며 '21년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결과 지난 8월말에 개최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사업추진이 결정됨
- 국비 4,915억 원이 투입되는 신규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총길이 5.3km, 3,200만㎡ 토사 수용)은 '24년도에 착공되어 '26년 운영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임

16)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22.08.24.), <https://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971&boardKey=10&articleKey=47055> (2022.9.21 검색)



11) 마산항

① 전국 18개 항에 '마산항 차수벽' 형태의 재난 방지사설 추가 설치 추진¹⁷⁾

- » 해양수산부는 제11호 태풍 '힌남노' 상륙 당시 침수피해 예방 역할을 한 '마산항 차수벽'과 같은 방재시설을 전국 18개 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임
- 마산항 차수벽은 경남 마산항 어시장 해안가를 따라 설치된 방재언덕과 기립식 방호벽으로 차수벽을 세우면 최고 5m의 해일을 막을 수 있는 시설임
- 마산항 차수벽은 지난 '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18명이 사망하고, 9,2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자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499억 원을 투입해 설치됨
- 해양수산부는 군산항과 부산남항에 각각 436억 원, 6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재언덕과 방호벽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31년까지 평택·당진, 목포, 완도 등 16개 항에 방재시설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임

17) 대한건설신문(2022.09.15.),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584>(2022.09.20. 검색)

마산항 차수벽



자료 : 한국일보(2022.09.05.),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90514070005197> (2022.09.20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① 상하이항, 동북아 공컨테이너 운송 센터 개장¹⁸⁾

- » 지난 9월 3일, 상하이항 양산 특별종합 보세구역에 동북아 공컨테이너 운송 센터가 정식 개장함
 - 해당 센터는 45만㎡ 면적으로 연간 약 300만 TEU의 컨테이너 처리가 가능함
- » 새로운 센터는 디지털 기반의 지능형 솔루션을 도입하여 양쯔강 삼각주 지역 및 양쯔강 연안 지역 고객들에게 공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공컨테이너가 북미 지역에서 막히면서 공컨테이너 가용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 상하이 국제 항만 그룹(SIPG)은 해당 센터 운영을 통해 국내외 무역을 활성화하여 국제 해운 중심지로서 상하이항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①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폐쇄루프(Closed-loop)' 운영 시스템 적용¹⁹⁾

- » 중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연토히항과 서커우항이 위치한 선전시는 8월 말부터 이동 제한을 연장했지만 완전한 봉쇄를 하지는 않음
 - 중국은 '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주요 도시 및 항만의 봉쇄를 진행한 바 있음
- » 대신 시 당국은 선전시의 항만 및 주요 기업들에게 '폐쇄루프'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여 제한적인 생산활동을 허용하고 있음
 - 선전은 화웨이 테크놀로지, 애플 폰 조립업체인 폭스콘 등 주요 공장이 위치한 곳으로 '폐쇄루프' 시스템 적용에 따라 직장과 집 사이에서만 통근을 할 수 있으며 직장 밖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금지하고 있음
-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로 중국 내 주요 항만 및 기업들은 언제든지 '폐쇄루프' 운영으로 전환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해당 운영 시스템에 익숙해져 어느 정도 정상적인 운영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힘
 - 지난 8월 하이난섬에서 코로나 변이 종이 발생함에 따라 당국이 봉쇄 조치를 내렸으나 양푸항은 '폐쇄루프'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여 결항 없이 정상 운영된 바 있음

18) Port Technology(2022.09.06.),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hanghai-port-opens-3-million-teu-empty-container-centre/>(2022.09.19 검색)

19) Port Technology(2022.09.06.),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hanghai-port-opens-3-million-teu-empty-container-centre/>(2022.09.19 검색)

2) 아시아

① 일본, 수소 운반선 수용 가능한 항만개발 추진²⁰⁾

- » 일본 정부는 차세대 연료인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소 운반선을 수용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전 세계적으로 탈탄소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장래 발전 및 운송 부문에서 수소에 대한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일본 정부는 '23년 5월경 개정이 예정된 해양정책기본계획에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해상운송망 구축 정책을 포함시켜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일본은 '30년까지 '13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약 46% 감축하고, '50년까지는 사실상 제로(0)로 줄여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연간 수소 소비량을 현재 200만 톤에서 '50년까지 2,00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수립 함
- 증가하는 수소 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수소 운반선을 취급할 수 있는 항만을 추가 건설 할 계획으로, 현재는 고베항이 수소 운반선을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항만임
- 정부는 전국의 항만관리 지방자치단체에 향후 수소 수요 전망을 지시하였으며, 수소 운반선이 접 안할 대상 항만은 지방자치단체의 분석 보고서와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② 인도, 쌀 수출 통제 조치 시행²¹⁾²²⁾

- »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가 쌀 수출 통제에 나섬에 따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주요 쌀 수입국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인도는 '21년 기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세계 쌀 수출량의 약 40%인 2,150만 톤의 쌀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임
- 그러나 올해 몬순(Monsoon)²³⁾ 기간 강우량이 평균치에 미달하면서 9월 2일 기준 생산량이 전년 대비 5.6% 감소하였으며, 최근 6~10월 쌀 생산량은 1,000만~1,200만 톤 감소(전년 대비 7.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지난 9일부터 싸라기(부스러진 저품질 쌀) 수출을 금지하고 일부 품종의 쌀은 20%의 수출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번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인도 항만에는 20여 척 이상의 선박이 약 60만 톤의 쌀을 선적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음
- 또한 40만 톤 규모의 쌀은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신용장(LC, Letter of Credit)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간 수출관세 납부 주체에 대한 이견으로 항만 창고와 컨테이너 화물작업장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임

20) The Japan News(2022.08.31.),
<https://japannews.yomiuri.co.jp/science-nature/climate-change/20220831-54941/>
 (2022.09.20. 검색)

21) 한국무역협회(2022.09.20.),[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iteId=1&nIndex=%2070613\(2022.09.20. 검색\)](https://www.kita.net/cmmrcinfo/cmmrcNews/cmmrcNews/cmmrcNewsDetail.do?pageIndex=1&SiteId=1&nIndex=%2070613(2022.09.20. 검색))

22) REUTERS(2022.09.20.),
<https://www.reuters.com/world/india/indian-rice-shipments-stuck-ports-traders-look-for-government-help-2022-09-20/>
 (2022.09.20. 검색)

23) 강우를 동반한 계절풍을 의미하며, 인도의 1년 강우량 중 80%가 몬순 기간에 내림

③ 싱가포르항만공사(PSA), 싱가포르 TUAS 항만 1단계 사업 3선석 공식 개장 발표²⁴⁾

- » 지난 9월 1일 PSA는 총 4단계로 추진되고 있는 TUAS 항만건설 사업 중 1단계 사업 3선석의 공식 개장 행사를 개최함
- TUAS Mega port 건설 사업은 4단계로 이루어진 초대형 신규건설 사업으로 '40년 최종 완공'이 목표인 싱가포르항만의 장기계획이며 현재 2단계에 해당하는 공사가 진행중임
- PSA는 TUAS 항만의 건설과 운영개시가 싱가포르항만이 세계 무역 허브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또한 신규로 건설되는 TUAS항만은 복합운송기능이 강화되어 싱가포르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24) Container News(2022.09.01.), <https://container-news.com/psa-singapore-opens-tuas-port/>(2022.09.22 검색)

3) 미주

① 미국 화물철도 노사협상 극적 타결²⁵⁾

- »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중재안으로 노사가 극적인 타결을 하며 운행 중단 위기에 몰렸던 미국 화물철도가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됨
- 유니온퍼시픽과 BNSF 등 미국 철도회사와 노조가 '20년부터 2년간 벌인 임금협상에서 인상을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비상대책위원회(PEB, Presidential Emergency Board)를 발족, 적극적인 중재에 나섬
- 철도노조 12개 중 10곳이 5년 동안 임금 22%를 인상하는 PEB의 중재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이를 거부한 두 곳도 조정기간 마감시한(9월 16일 0시) 이전에 10개 노조의 인상률보다 2%p 높은 24% 인상안에 합의함
- 미국철도협회(AAR, Association of American Railroads)는 이번 합의로 기관사·승무원연합과 판금·항공·철도·운송노조 철도지부 노동자 임금은 '24년까지 5년 동안 24% 인상되고 이와는 별개로 노동자 1명당 평균 11,000달러의 상여금이 즉시 지급된다고 전함
- 합의안은 노조 전체 조합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철도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 조건 개선, 의료비 부담 해소를 얻었고 철도회사는 더 많은 근로자를 유지하고 채용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함
- AAR 보고서에 따르면 화물철도 파업 시 7,000대 이상의 열차가 운행을 중단하고 하루 2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됨
- 미국은 작년 철도를 통해 수송한 컨테이너 화물은 1,410만 개였으며, 이 중 국제무역 화물 비중은 40%에 달함
- AAR은 철도 폐쇄 시 제조업, 유통업, 소매업, 소비자 등 미국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

25) Container News(2022.09.01.), <https://container-news.com/psa-singapore-opens-tuas-port/>(2022.09.22 검색)

4) 유럽

① MSC와 허치슨포트, 로테르담항에 700만 TEU 컨테이너 터미널 신규 개발 계획 발표²⁶⁾

» 네덜란드 로테르담항만국은 해운사 MSC의 터미널자회사 TiL과 홍콩계 글로벌 항만운 영사인 허치슨포트가 공동으로 로테르담항에 새로운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 한다고 밝힘

- 이번에 개발되는 컨테이너 터미널의 연간 최대 처리능력은 700만 TEU로, '27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용될 계획임
- 터미널은 허치슨포트의 ECT 델타터미널, 델타터미널과 인접한 곳에 개발되며, 총길이 2.6km인 안벽에 5개의 선석을 갖출 예정임

» 한편, MSC는 최근 각국에 터미널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MSC는 올해 7월에 라브르항에서 총액 7억 유로(약 1조 원)의 투자를 실시하여 터미널 처리능력을 3배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베트남 호찌민에도 연간 1,500만 TEU 처리능력을 가진 대규모 터미널 건설계획을 제출함

26) 코리아워킹가제트(2022.09.06.),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35527(2022.09.21.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시드니 보타니항(Port Botany), 공컨테이너 적재시설 건설²⁷⁾

» 보타니항은 항만 효율성을 높이고 트럭 혼잡을 줄이기 위해 6,000TEU급 규모의 공 컨테이너 적재시설(ECP, Empty Container Park)을 건설 중임

- 본 시설은 트럭이 항구를 떠나지 않고 공컨테이너를 ECP에 저장한 다음 새로운 적재 컨테이너를 운반할 수 있어 트럭 혼잡과 대기열 감소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됨
- ECP 서비스는 '23년부터 제공될 예정이며 종이 없는 운영, 빗물 활용 및 태양광을 통한 전력 공급과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최첨단기술이 적용될 예정임
- ECP는 시설에 진입하는 트럭을 광학 문자 인식 기술(OCR,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로 인식하여 안전한 지정 구역 선정 및 빠른 경로 안내를 지원함

27) Infrastructure Magazine(2022.09.05.), <https://infrastructuremagazine.com.au/2022/09/05/new-empty-container-park-to-increase-efficiency-at-port-botany/>(2022.09.10. 검색)



6) 아프리카

① 수에즈운하, '23년 1월부터 두 자릿수 통행료 인상 예정²⁸⁾

» 수에즈운하 당국(SCA, Suez Canal Authority)은 '23년 1월부터 건화물선과 유람선의 통행료를 10% 인상, 그 외 선박은 15% 인상할 계획임

- SCA는 수에즈운하의 통행료를 결정하는 것은 선박별 평균 운임이며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평균 운임 및 용선료, 현재 급격하게 상승하는 전 세계의 물가 상승률에 따라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힘
- '21년 수에즈운하를 통과한 선박은 2만 649척으로 '20년(1만 8,830척) 대비 9.7% 증가했으며 운송 톤수 기준 12억 7,000만 톤이 운하를 통과함²⁹⁾

28) Suez Canal Authority(2022.09.17.),
https://www.suezcanal.gov.eg/english/mediacenter/news/pages/sca_17-9-2022.aspx(2022.09.20. 검색)

29) Cargo Press(2022.09.20.),
http://www.cargopress.co.kr/korean/news_view.php?nd=3445(2022.09.20.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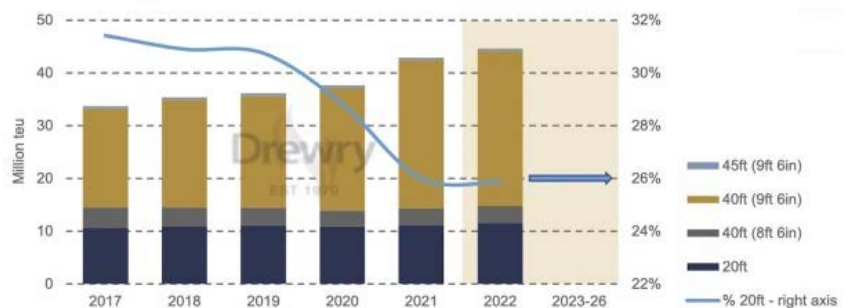
① 20피트 컨테이너 비중 향후 25% 이상 점유율 유지 전망³⁰⁾

- » 최근 드루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컨테이너에서 20피트 컨테이너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함
- 20피트 컨테이너 비중은 '19년까지만 해도 40%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21년 20피트 신조 컨테이너 물량이 감소하면서 비중이 크게 감소함
- » 그러나 올해 8월까지 20피트 컨테이너 주문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점유율 역시 소폭 증가함
- 8월 누적 기준 20피트 컨테이너는 50만 TEU가 생산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수치이며 '20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임
- » 올해 20피트 컨테이너는 총 90만 TEU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56만 TEU 대비 60% 이상 증가한 수치로 향후 5년 동안은 25% 이상 점유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

30) Splash News(2022.09.13.), <https://splash247.com/20ft-containers-are-not-nearing-extinction-drewry/>(2022.09.19. 검색)

규격별 해상 컨테이너 비중

Maritime dry freight standard container fleet by size



Source: Drewry's Container Census & Leasing and Equipment Forecaster

자료 : Splash News(2022.09.13.), <https://splash247.com/20ft-containers-are-not-nearing-extinction-drewry/>(2022.09.20. 검색)

2) 양곡

① 8월 식용 밀, 옥수수 수입단가 전월 대비 하락, 채유용 콩과 대두박 소폭 상승³¹⁾

» 채유용 콩을 제외한 8월 주요 식용 곡물 수입가가 하락한 반면 주요 사료용 곡물의 수입 단가는 옥수수를 제외하고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함

- 식용밀(449달러/톤)과 옥수수(439달러/톤)의 수입단가는 각각 전월 대비 2.3%, 2.4% 하락함, 반면 채유용 콩의 8월 수입단가는 692달러/톤으로 전월 대비 0.6% 소폭 상승함
- 사료용 옥수수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2.3% 하락한 404달러/톤을 기록하였으나 사료용 밀(351달러/톤)과 대두박(624달러/톤)의 수입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2.7%, 0.2% 상승함

31) 농촌경제연구원 국제곡물 관측 월보 9월호 (2022.8.31.), 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6791/page/1(2022.9.22 검색)

3) 시멘트

① 레미콘업계, 시멘트 가격 인상철회를 위한 무기한 파업 예고³²⁾

» 레미콘업계는 시멘트업계에서 제시한 '22년 9월 시멘트 가격 인상안(평균 13.5%) 철회를 위해 10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함

- 지난 9월 2일 레미콘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22년 10월 10일부로 전국 1,000여개의 레미콘 공장의 조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함
- 국토교통부 주재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산자원부가 갈등 조정엔 나섰지만 비상대책위원회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정부의 중재가 사실상 무산됨
- 시멘트업계는 주요 원자재인 유연탄 가격 상승을 이유로 '21년 7월 5.1%, '22년 2월 17.8% 인상했으며, '22년 9월(삼표, 성신, 한라, 한일) 12.7% 추가 인상함

32) 매일일보 (2022.09.14.),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49752>(2022.09.16 검색)

9월 시멘트 가격 인상안

(단위: 원, %)

구분	공급 가격(톤 당)	'22년 9월 인상안(톤 당)	인상률
한일현대시멘트	92,200	106,000	15.0
한라시멘트	92,600	106,000	14.5
성신양회	92,500	105,000	13.5
삼표시멘트	94,000	105,000	11.7
쌍용C&E	90,800	검토 중	
아세아시멘트	92,300	검토 중	

자료: 머니투데이(2022.08.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83014381960295>, (2022.09.16. 검색), KMI 제작성

4) 모래

① 한국골재산업연구원,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 후 첫 검사 시행³³⁾

- » 지난 8월 22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골재 생산현장을 방문해 골재 품질을 검사함
- '22년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도는 기존 골재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직접 시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제도임
- 골재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골재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실시해 생산된 골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함

33) 국토매일 (2022.08.25.), <http://www.pnnews.co.kr/106845>(2022.09.19 검색)

5) 석탄

① 중국, 러시아산 석탄 수입량 급증³⁴⁾

- » 중국은 7월 말부터 시작된 폭염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와 인도네시아로부터 석탄 수입을 늘리고 있음
- 로이터통신(Reuters)에 따르면, 8월 중국이 수입한 러시아산 석탄은 지난달 742만 톤보다 증가한 854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약 57% 증가하였으며, 이는 '17년 이후 가장 높은 월간 수입량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 등 서방국가가 러시아산 에너지를 제재하면서 러시아산 석탄 가격이 대폭 하락함에 따라 중국은 최근 몇 달 사이 러시아산 석탄 수입량을 늘리고 있음
- 이러한 수입량 증가는 7월 말부터 시작된 극심한 가뭄과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폭증하였고, 전력 공급 정상화를 위한 석탄 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늘린 것에 기인함
- 러시아산 석탄의 경우 중국 내 생산되는 석탄보다 품질이 좋고, 동일 품질 기준 가격이 저렴하여 중국의 전력회사들에게 큰 장점이 있음

34) REUTERS(2022.09.20.),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chinas-aug-coal-imports-russia-highest-least-5-years-2022-09-20/>(2022.09.20. 검색)



6) 철광석

① 철광석 가격, 중국 철강 수요 위축 전망으로 하락³⁵⁾³⁶⁾

» 9월 16일 기준 북중국 철광석(Fe 62%, CFR) 가격은 톤당 98.45달러로 전월 대비 약 11% 감소함

- 중국 부동산 업계의 부도 위기 등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업체들의 개발 지연, 탈탄소화 계획에 따른 중국 정부의 철강 감산 정책, 코로나19로 인한 전국적인 도시 봉쇄 재개로 건설 분야 성수기인 9~10월의 철광석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 철강 수요산업 회복 여부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이 이어지면서, 철광석 가격 역시 100달러 내외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서서히 하락하고 있음

35)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09.19.), https://im.kores.net/komis/trend/dailynews/resources/trendList.do?se_cd=130(2022.09.21. 검색)

36) 스틸데일리(2022.09.19.), <https://www.ste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70>(2022.09.21. 검색)

중국 철광석 가격 추이



자료 : 스틸데일리(2022.09.19.), <https://www.ste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670>(2022.09.21. 검색)



7) 기타광석

① 동, 아연 등 주요 광물가격, 미 달러 가치 상승세 둔화 및 광종별 빠듯한 수급으로 상승세 기록³⁷⁾

- » 미 달러 가치 상승률 둔화 및 광종별 빠듯한 수급으로 비철금속 상승압력이 발생하면서 9월 2주차 전기동과 니켈 가격이 각각 전주 대비 상승세를 나타냄
 - 미달러인덱스는 109.44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4주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여 전주 대비 0.03p 하락하면서 상승률이 둔화됨
 - 다만, 미국의 8월 인플레이션율이 전년 동월 대비 8.3%로 시장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상 가속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또한 9월 22일 미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인상 결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6월, 7월에 이어 3연속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상기 상승압력이 부분적으로 상쇄되는 상황임
- » 전기동의 경우 재고량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9월 2주차 LME 재고량이 10만 3,465톤으로 전주 대비 1.6% 감소하는 등 8주 연속 감소세로 빠듯한 수급상황을 나타내며 상승압력이 심화됨
 - 니켈은 LME 재고량이 5만 2,594톤으로 전주 대비 2.8% 감소하여 19주 연속 감소세를 지속함
 -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중단으로 유럽의 제련소 기준 생산용량 절반가량 생산을 중단하면서 아연 공급부족 우려가 제기됨

37) 한국자원정보서비스(2022.09.19),
https://www.kores.net/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2.09.20. 검색)

8) 목재

① 세계 목재산업 7월 동향³⁸⁾

- » 수요 동향
 - 중국, '22년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2%로 전월 대비 0.6%p 상승함
 - 중국, '22년 1~5월 부동산 총투자는 5.2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함
 - 일본, '22년 5월 주택착공은 67,193호로 전년 대비 4.3% 감소함
 - 미국, '22년 6월 주택착공은 155만 9천 호로 전월 대비 2.0%, 전년 동월 대비 6.3% 감소함
 - 유럽 목재무역연합, 하반기 세계 목재시장 약세 전망함
- » 생산 동향
 - 유럽 제재산업 기구, '22년에 8,992만 5천 m³ 생산을 예상함
 - 미국, '22년 1~7월 서부제재목 생산은 전년 대비 6.1% 감소함
 - 러시아, '22년 1~4월 목재펠릿 생산은 75만 9천 m³로 전년 대비 7.3% 증가함
 - 캐나다, '22년 1~5월 제재목 생산은 2,274만 m³로 전년 대비 9.5% 감소함

38)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2.08.22),

» 수출입 동향

- 중국의 '22년 1~6월 원목 수입은 2,238만 m³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였으며, 제재목 수입은 1,303만 8천 m³로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함
- 캐나다 BC주의 '22년 1~6월 원목 수출은 133만 m³로 전년 대비 27.6% 감소함

» 유통 동향

- 중국 주요 항만의 6월 말 원목 재고는 511만 m³로 전월 대비 6% 감소함
- EU 내 목재펠릿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함

» 입업정책 동향

- 미국,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12억 그루 식재 추진함
- 일본, 지구 온난화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J-신용제도 개정함
- 러시아, 목재품 수출에 보조금 지급 계획 및 미건조 제재목의 수출관세 해제를 추진함

» 국내 목재산업 영향

- 환율 상승으로 수입원가 증가 및 수요부진으로 재고가 증가함
- 국내 건설경기 침체로 판매가 부진하여 목재류 수입물량이 감소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2년 누적(1-7월)	2021년 누적(1-7월)	증감률(%)
원목(천 m ³)	1,587	1,900	-16.5
제재목(천 m ³)	1,112	1,216	-8.6
성형목재(톤)	54,941	70,955	-22.6
합판(천 m ³)	854	914	-6.6
파티클보드(천 m ³)	816	962	-15.2
섬유판(천 m ³)	135	118	+14.4
우드펠릿(천 톤)	2,249	2,098	+7.2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2.08.22.),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vjEH6ypVP1xF0wA2C8gbEOxJYM8WjZsXTf6SXan1Gd4mHaT2bOGw964Z5JdEs6BC.frswas02.servlet_engine5?nttd=3174060&bb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 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2.09.21.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vjEH6ypVP1xF0wA2C8gbEOxJYM8WjZsXTf6SXan1Gd4mHaT2bOGw964Z5JdEs6BC.frswas02.servlet_engine5?nttd=3174060&bb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 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2.09.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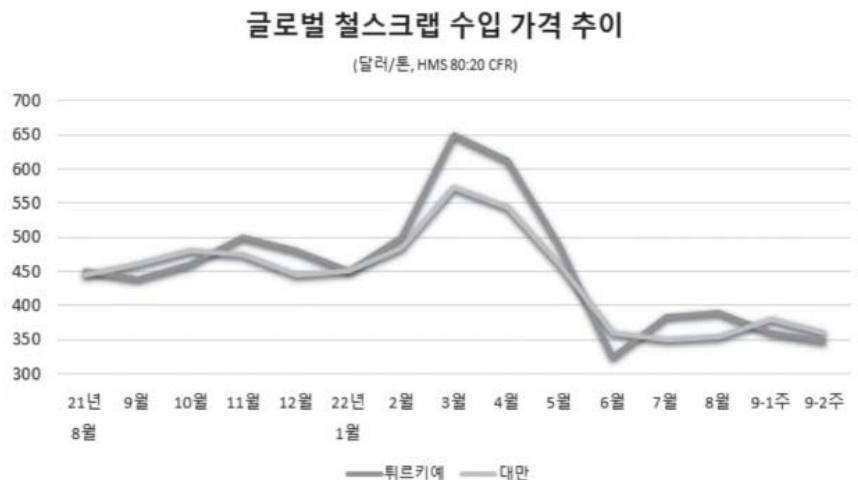
9) 고철

① 국내 고철 가격 18주간 연속 하락 후 5주 연속 상승³⁹⁾

- » 9월 셋째 주 영남권 고철 가격은 전주 대비 톤당 2만 원씩 증가하여 5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함
- 영남권 고철 가격은 5월 다섯째 주부터 8월 셋째 주까지 18주간 연속 하락했으나, 최근 포스코의 가격 인상과 대한제강, YK스틸, 한국철강, 동국제강 등 여러 제강사들의 가격 특별 인상 연장으로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임
- » 그러나 글로벌 고철 가격이 약보합세를 보임에 따라 국내 고철 가격의 상승세도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고철 시장의 대표적 선행지표인 튀르키예 고철 가격이 8월 다섯째 주부터 3주 연속 하락함
- 러시아발 에너지 쇼크로 튀르키예 9월 전기료 가격이 50% 인상되면서 튀르키예 제강사들은 공장 가동률을 최대 33.3%까지 낮췄고, 고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가격이 낮아짐
- 더불어 지난달 튀르키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로 8월 튀르키예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80.2% 급등하면서, 전반적인 튀르키예 시장이 침체됨에 따라 당분간 수요가 다시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됨
- 튀르키예 시장 침체에 따라 그간 상승세를 보이던 대만 철스크랩 수입 가격 또한 전주 대비 20달러 떨어지고, 일본 관동 지역 고철 수출 가격 또한 감소하는 등 약세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것으로 전망됨

39) 철강금속신문(2022.09.21.),
<http://pdf.snmnews.com/PDF/REAL/2022/09/21/PS010921010100301B0001.pdf>(2022.09.21. 검색)

글로벌 고철 수입 가격 추이



자료 : 철강금속신문(2022.09.21.), <http://pdf.snmnews.com/PDF/REAL/2022/09/21/PS010921010100301B0001.pdf>(2022.09.21. 검색)

10) 철재

① 철근, 녀 달 연속 수입량 감소⁴⁰⁾

» 달러 대비 원화 약세 등으로 인해 철근 수입 물동량이 녀 달째 감소세를 보임

- 원화 약세와 더불어, 8월 중순까지 급락했던 고철 가격의 약세와 최근 감소 중인 철근 유통가격 또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 올해 1~8월 철근 수입은 4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0% 감소함

- 국가별로는 지난해 중국의 증치세* 폐지 및 자국 수요 집중으로 1~8월 중국산 수입 철근은 전년 동기 대비 55.7%가 감소한 15만 2,922톤을 기록하였고, 이 자리를 대만산과 일본산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드러남

*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액을 과세 근거로 삼아 과세하는 일종의 거래세

- 그러나 최근 강달러와 수입 이익률 문제로 철근 수입이 급감하면서, 7월까지 증가세를 보였던 일본과 대만의 철근 수입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3%, 16.3% 감소한 24만 7천 톤, 3만 3천 톤을 기록함

40) 철강금속신문(2022.09.19.),
<http://pdf.snmnews.com/PDF/REAL/2022/09/19/PS010919010100401B0002.pdf>(2022.09.21. 검색)



11) 자동차

① '22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⁴¹⁾

-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내수는 꾸준한 신차 수요로 고객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1.0% 감소한 10만 5,702대를 판매함
 - 친환경차는 전년 동월 대비 9.3% 증가한 23,949대로, 하이브리드가 전년 동월 대비 1.6%, 전기차는 16.8%, 수소차는 76.3% 증가하여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의 22.7%를 차지함
- » 수출은 전년도 저조한 수출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국산차의 해외 판매 호조가 지속되며 전년 동월 대비 29.1% 증가한 168,155대 기록함
 - 수출액은 41.2억 달러로 역대 8월 실적 중 최초로 4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주요 수출 시장인 북미 수출액 대폭 증가(+66.8%)가 실적 경신에 기여함
 - 친환경차는 수소차를 제외한 모든 친환경차 수출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로 증가한 40,215대로 전체 자동차의 23.9%를 차지하였으며, 월 수출액은 최초 10억 달러 돌파 이후 1년 연속 10억 달러를 상회함
- » 생산은 반도체 수급난의 점진적 완화와 더불어 노사임금협상이 생산에 차질없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며 완성차 5개사 모두 두 자릿수 성장함
 - 저조한 전년도 실적의 기저효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한 28만 4,361대를 생산함

41)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 (2022.09.1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61&menuum=0004(2022.09.21. 검색)

(단위 : 대, 백만 \$, %)

'22.8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구분	2021년			2022년			증감률		
	연간	8월	1~8월	7월	8월	1~8월	전월비	동월비	1~8월
내수	1,440,786	106,796	987,183	122,874	105,702	901,080	-14.0	-1.0	-8.7
수출	2,040,572	130,213	1,370,129	222,654	168,155	1,463,834	-24.5	29.1	6.8
(완성차 수출액)	46,465	3,029	30,727	5,137	4,116	33,595	-19.9	35.9	9.3
생산	3,462,499	234,963	2,347,173	324,306	284,361	2,387,706	-12.3	21.0	1.7
(부품 수출액)	22,776	1,579	15,174	2,033	1,808	15,632	-11.1	14.5	3.0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2.09.19.),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61&menuum=0004#(2022.09.21. 검색)



12) 잡화

① '22년 7월 국내 기계 산업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 수입은 2.1% 감소⁴²⁾

≫ 7월 기계 산업 수출금액은 전기기계업(-25.1%)과 정밀기계업(-3.9%)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일반기계업(+4.3%), 수송기계업(+20.2%), 금속제품업(+12.1%)부문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 기계산업의 수입에서 감소한 부문은 정밀기계업(-16.0%), 수송기계업(-12.2%)이며 그 외 일반기계업(+5.6%), 전기기계업(+15.2%) 등의 수입금액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함

42)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9월호(2022.09.14.), <https://www.koami.or.kr/data/industryView.do#> (2022.9.22. 검색)

(단위: 백만 달러, %)

'22년 7월 기계 산업 업종별 품목 동향

구분	'22. 7				'22. 1~7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기계 산업(합계)	20,092	4.8	11,870	-2.1	126,409	-63.9	80,880	-63.0
일반기계업	4,618	4.3	3,839	5.6	31,606	-62.6	25,660	-63.5
전기기계업	2,980	-25.1	2,525	15.2	21,093	-67.9	16,406	-61.7
정밀기계업	1,472	-3.9	2,410	-16.0	10,948	-63.9	16,761	-64.1
수송기계업	10,094	20.2	2,480	-12.2	55,998	-63.0	17,944	-62.5
조선	2,451	30.6	267	-43.5	10,223	-68.3	1,374	-66.5
금속제품업	929	12.1	617	2.5	6,764	-61.7	4,109	-63.1

자료: 한국기계산업 진흥회 기계산업 통계월보 9월호
주: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3) 유류·화학공업생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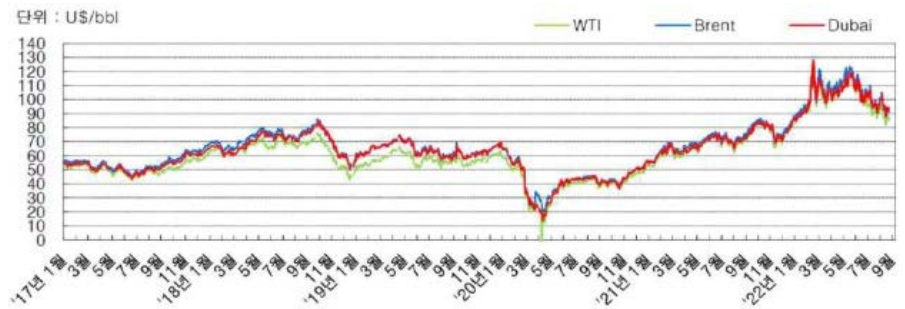
① 9월 2주차 국제유가, Brent, WTI, Dubai, Oman 모두 상승⁴³⁾

»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주간 배럴당 평균 가격은 전주(9월 5일~9월 9일) 대비 Brent, WTI, Dubai, Oman은 각각 1.31, 2.38, 1.04, 1.05달러 상승함

- 지정학적인 요인으로는 이란 핵협정 타결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유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함
- 수급 관련하여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미 원유재고가 증가하면서 제한요인으로 작용함
- 그 외 중국의 제조업 지원 약속 등은 상승요인, 미국의 고강도 긴축정책 우려와 주요 기관의 경기 침체 가능성 경고 등은 상승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43)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2022.09.1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9.20. 검색)

(단위: US\$/bbl)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주간 평균 가격			일일 가격			
	9월 1주 (9.5~9.9)	9월 2주 (9.12~9.15)	전주 대비	9월 12일(월)	9월 13(화)	9월 14일(수)	9월 15일(목)
Brent	91.71	93.03	+1.31	94.00	93.17	94.10	90.84
WTI	84.79	87.17	+2.38	87.78	87.31	88.48	85.10
Dubai	92.28	93.33	+1.04	92.42	94.50	92.73	93.66
Oman	92.35	93.39	+1.05	92.45	94.58	92.77	93.78

자료: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2022.09.1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2.09.20. 검색)

②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배관의 단계적 수소배관 전용화 추진⁴⁴⁾

» 유럽·북미·호주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존 가스시설의 빠른 수소 배관 전환을 위해 10여 년 전부터 활발한 연구를 시행하고 있음

- 유럽 28개국은 '유럽 수소 배관망 구축 로드맵(European Hydrogen Backbone)'을 통해 '40년까지 유럽 통합 수소 배관망 53,000km를 구축 시 기사용 중인 천연가스배관을 60% 이상 활용할 경우 투자비용의 약 75~90% 절감할 수 있다고 예상함

44) 한국가스공사 보도자료(2022.08.30), <https://www.kogas.or.kr:9450/site/koGas/bbs/View.do?cbldx=41&boardidx=44562&Key=1010202000000&searchValue=&searchKey=&pageOffset=0&pageInd ex=1>(2022.09.20. 검색)

- 한국가스공사(KOGAS)도 천연가스 인프라를 활용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수소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 » KOGAS는 지난 5월 고압 천연가스 주배관망의 수소 혼입 및 전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DNV와 '천연가스 주배관 수소 혼입 컨설팅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함
- 1864년 설립된 DNV(노르웨이 선급협회)는 선급, 에너지 컨설팅, IT 솔루션, 에너지분야 인증 관련 9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유럽 등지에서 약 70여 개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섞어 공급하는 수소 혼입은 수소 혼입만큼 도시가스 사용량이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으나 배관 재질 특성, 주변 설비 수용성, 연소기기 안정성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KOGAS는 DNV와 함께 수소 혼입 농도별 배관 설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25년까지 수소 20% 혼입 실증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향후 고농도 수소공급을 위해 발전사 천연가스 공급배관을 시작으로 수소전용화 시킬 계획임
- 그 외에도 수소 혼입 실증 연구 및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한국남부발전과 그린수소 혼입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3년부터 평택 LNG 기지에 천연가스 파일럿 공급설비(Test-Bed)를 구축해 수소 혼입을 실증할 예정임
- 아울러 기존 배관 수명 평가 용역 및 해외 실증사업 공동 참여를 통해 수소 혼입 효율성을 높여줄 수소 분리(Deblending) 기술 등을 확보해 나갈 방침임

③ LG화학,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활용 업무협약 체결⁴⁵⁾

- » LG화학은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생산 및 활용을 위해 남해화학,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협약에 참여한 4개 업체는 수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산업 밸류체인 개발 전반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해외 생산 청정수소를 암모니아 형태로 운반하고 청정수소로 변환하여 화석연료의 대체 연료로 활용하게 됨
- » 각 업체는 암모니아 기반 청정수소 사업 분야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면밀히 진행해 그 결과에 따라 추후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임
- LG화학은 청정수소 상용화가 본격화되면 여수공장에 도입해 NCC(Naphtha Cracking Center)공장의 연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그 외 암모니아의 수소 변환 시 필요한 촉매 개발 등 청정수소의 도입, 활용 전 과정 실증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협력할 계획임
- 남해화학은 암모니아의 운송, 변환, 활용을 위해 암모니아 저장탱크 등 공급 인프라를 제공하며 최적의 암모니아 공급망 구축에 협력할 계획임
- 두산에너빌리티는 암모니아를 분해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하고 발전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터빈 연계 등 청정수소 생산 관련한 효율적인 플랜트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삼성물산은 기존 에너지 자원 트레이딩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해외 청정수소의 국내 도입 및 활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을 계획임

45)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 동향 (2022.09.06.),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491(2022.09.20. 검색)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2. 9. 29

편집 겸 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